

[중남미 비즈니스 정보]

베네수엘라, 3월 원유 생산량 대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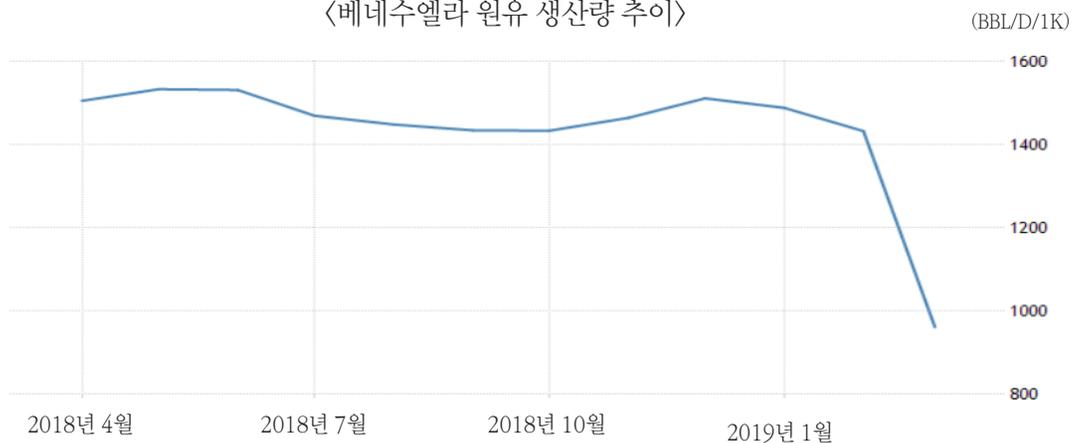
베네수엘라의 3월 석유 생산량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제재 심화에 이어 최근 발생한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일부 주요 원유 관련 시설들의 가동 중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흥 수입국을 모색하고 있으나, 미국의 제재 압박이 심화됨에 따라 수출로 확보 어려움 및 석유 생산량의 하락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전 사태로 원유 생산량 약 2/3 감소

지난 3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경제 제재와 더불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지난 3월 7일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전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유정 및 석유 굴삭 장치 대부분이 마비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공식 자료에 따르면, 정전 동안 하루 평균 석유 생산량은 60만 배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은 생산량 감소 및 투자 부족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의 이탈 등으로 하락세를 겪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원유 수출 시장 봉쇄 및 정제에 필요한 물자 수입로 차단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산업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상임 이사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량 감소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베네수엘라, 미국 제재 강화로 석유산업 하락세 지속 전망

베네수엘라는 지난 2월 석유 선적이 약 40% 하락한 99만 215bpd를 기록했으며, 3월에는 이보다 소폭 하락한 98만 355bpd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월과 3월 석유 수출 시장은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은 총 석유 수출의 1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제재 전까지 베네수엘라의 최대 석유 수출국이었으나, 지금은 수출량이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는 현재 베네수엘라 에너지 수출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베네수엘라의 주요 석유 수입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베네수엘라는 러시아, 중국, 인도 및 쿠바 등의 시장으로 석유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를 피해 석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신흥 원유 수출국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자회사 혹은 금융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들에 대한 수입 감축 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 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 향후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로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석유 생산량 및 수출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정리 : EMERiCs, 자료감수: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 Petroleum World, Venezuela energy blackouts cut oil output by half during March, 2019.04.05
- Reuters, Venezuela oil exports stable in March despite sanctions, blackouts, 2019.04.03
- Bloomberg, PDVSA Crude Output Plunges on Venezuela Power Cuts, 2019.03.12
- TradingEconomics, Venezuela Crude Oil Production, 2019